



"보자 보자 하니까 얻어 온 장 한 번 더 뜬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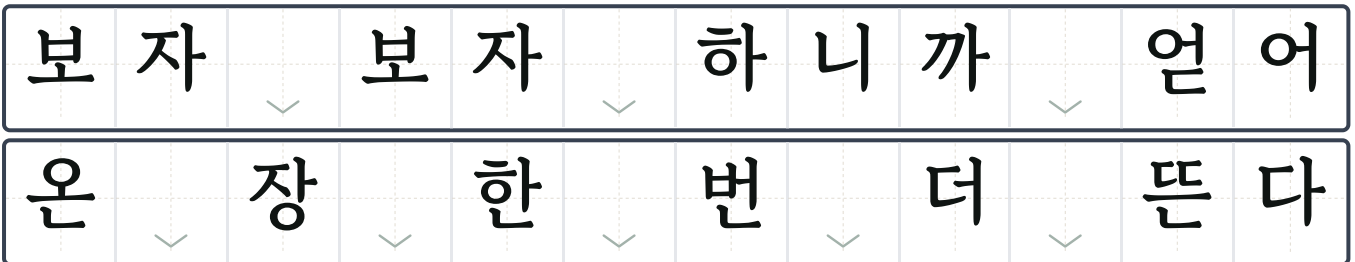
뜻: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계속 참아주면, 그 행동을 고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하게 군다는 뜻이야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관용 · 악화 · 악용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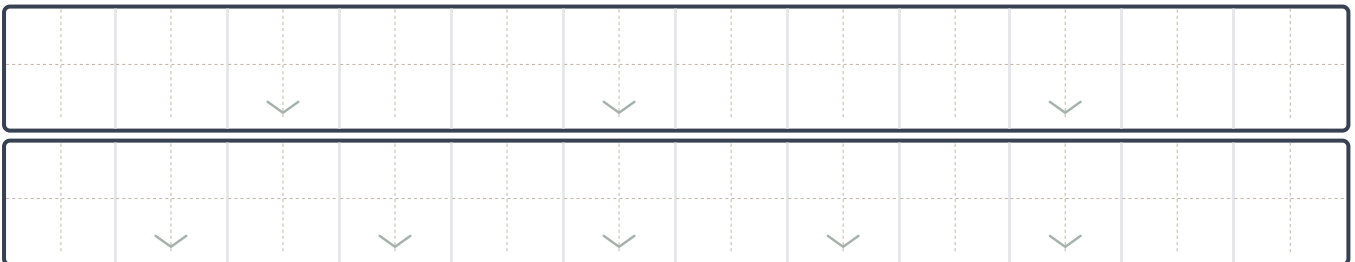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보 자] [보 자] [하 니 까] [얻 어] [온 장] [한 번] [더 뜬 다]

웹에서 보기

